

# “광주공항 국내선 2014년 이전 불가 군사공항과 동시 이전 제안땀 검토”

## 광주시 행정부시장 밝혀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논란과 관련해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는 2014년 KTX 개통 후 항공수요 등 변화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최근 광주공항 국내선 조기 이전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뺑기”를 박고 나선 것이어서 전남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남 일각에서

무안공항 개항 당시 KTX 개통시점인 2014년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방향을 합의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합의 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시장은 “무안공항으로 옮겨간 광주공항 국제선 노선이 폐지될 사례와 같이 국내선을 옮기면 노선 자체가 폐지될 것이다”며 “국내선 이전은 철도, 도로, 항공 등 광주시의 3대 교통수단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남도가 국내선 무안 이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2006.11)’에 대해 광주시가 동의한 적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국가계획 변경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부시장은 “광주공항의 국내선과 군사공항을 동시에 이전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시민들의 뜻을 물어 최선을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의 한 간부는 “올 초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와 공항문제 를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한 광주시의

한 간부가 KTX 개통 후 국내선 이전한다는 광주시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 논란을 예고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당초 19일부터 25일 까지 광주시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던 광주공항의 국내선 무안 이전 찬·반 여론 조사를 전격취소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국가 사무인 공항운영에 관한 정책결정을 미룬 채 시·도 협의와 여론 조사 등으로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역민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녹색성장, 여성의 힘으로

제12회 전라남도 여성대회가 박종영 전남지사와 유영란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일태 영암군수, 여성단체회장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오후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제12회 전라남도 여성대회가 박종영 전남지사와 유영란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장, 김일태 영암군수, 여성단체회장 등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8일 오후 영암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전남도 제공)

## “호남고속철 개통때까지

###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를

#### 이용섭 의원 주장

광주시의 광주공항의 국제선 재유치와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내년 광주시출마를 공시화한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울)이 18일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이 광주까지 개통되는 오는 2014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공항의 국내선을 지금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대부분의 시민들이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게 되므로 무안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여자핸드볼 팀 창단

## 시, 내년 4월

광주시 산하 광주도시공사에서 여자 핸드볼 팀이 내년 상반기 창단된다. 광주시는 18일 “핸드볼 불모지인 광주에 팀을 창단함으로써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전국체전 등에서 광주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내년 4월 여자 핸드볼 팀을 창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팀을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6명, 팀 운영요원 2명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키로 하고, 내년초부터 스카우트에 들어갈 방

침이다. 또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대한핸드볼 협회와 협의하는 한편, 연습장과 숙소, 선수단 버스를 갖춘 예정이다. 팀 명칭은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팀 창단 비용과 운영비용 등 총 1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선수단 구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매년 10억여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 이 가운데 50%를 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지방 소득·소비세, 불균형 심화”

##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 “배분방식 가중치 필요”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이 과세자 주권확보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지방세 구조 개편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8일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이 각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 분권을 진전 시킴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방세 도입은 필요하지만 실질적 세수효과나 세목 체계의 단순화 효과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세계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원의 배분지표인 민간 최종 소비지출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소비지 지출액이 각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을 통한 세입 분권을 진전 시킴으로써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했다. 또 세원의 배분과정에서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장치로 자체 재원의 성격이 희석돼 조세가 아닌 이전재원으로 그 성격이 전환돼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간 배분방식에 가중치를 두는 것은 과세자 주권확보에 한계가 있어 배분기준을 시의적절하게 바꿔줘야 해 기존 교부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방소비세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빛의 만평

- 김중두

말안해도 눈치껏 알아서 적적...

## ‘미술품 업체 강매’ 국세청 국장 체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홀로써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G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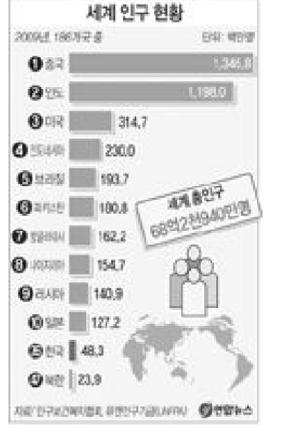
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이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왜곡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며, 부인 홀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일 G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업체와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G갤러리에서 수입액원대의 미술품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남스

# 우리나라 인구 4,830만명

## 출산율 가장 낮아 ... 세계 인구 68억명

올해 세계 총인구는 68억2천940만 명으로 작년보다 7천97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는 4천83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는데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22명으로 최저 수준이어서 2050년 인구가 4천410만 명으로 감소, 세계 40위권 밖(41위)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8일 유엔인

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1위는 중국으로 13억4천580만명이며, 인도(11억9천800만명), 미국(3억1천470만명)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연남스



### 합평군 공고 제2009-452호

#### 합평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주민설명·공고

영산강권 급속개발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권(수도권급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 설명·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설명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 19일  
합 평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 명 : 영산강권 급속개발추진사업
  - 위 치 : 합평군 영대리, 합평읍 일원
  - 면 적 : 15,092.1㎡
  - 사업시행자 : 합평수자원공사
2. 주민설명회(주민설명회)
  - 공개제시(수도권급비) : 송수시설
3. 공개제시(수도권급비)
  - 주민설명회(수도권급비) : 송수시설
4. 공개제시(수도권급비)
  - 주민설명회(수도권급비) : 송수시설
5. 공개제시(수도권급비)
  - 주민설명회(수도권급비) : 송수시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합평군청 홈페이지(☎061-320-3710)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 고

병욱 아버님 김해김공 길봉(아브라함)께서 2009년 11월18일 (음10월2일) 오전 0시40분 노환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기에 삼가알려드립니다.

- 발인일시 : 2009년 11월 20일(금) 오전 8시
- 발인장소 : 무등장례식장 102호실  
광주 북구 우산동 518-5 9호 주차
- 장 소 : 임실호국원 국립묘지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전리551) (063)603-6083
- 장례미사 : 2009년 11월 20일(금) 오전 9시  
광주지산동성당

미 망인 : 김 순임  
아 들 : 김 병욱 (제러시아사업)  
김 상철 (전남경찰청 경정)  
김 상만 (주)오토레버  
며느리 : 신경숙, 김성희, 송수정  
딸 : 김윤정, 김유정  
사 위 : 나명열 (한나라당 광주시장 사무처장)  
윤기남 (LS산전부장)

손 자 : 김어진, 김민중, 김현욱, 김어화, 김다스리  
외손자 : 나현철, 나지영, 윤순필, 윤신혜  
호 상 : 김호윤  
연 락 처 : 무등장례식장 (062)515-4488  
상 주 019-9172-2399

(개별부고 생략)

# 2010학년도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kjnu.ac.kr/) 신입생 모집

- 모집전공
  - 아간제 : 초등 도덕, 국어, 사회과,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실과 · 환경, 영어, 컴퓨터, 특수, 유아교육, 아동상담심리, 교육과정과수업, 다문화교육 전공 등 15개 전공
  - 계절제 : 초등 도덕, 국어, 사회과,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 환경, 컴퓨터, 교육과정과수업, 교육행정 · 정책, 유아교육 전공 등 12개 전공
- 모집인원 : 262명(특별전형 - 파견교사 00명 포함)
- 원서접수기간 : 2009. 11. 23(월) ~ 12. 5(토)
- 입학자격 전면 완화 :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일반 학사학위를 취득한 (예정자 포함)자도 지원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상담문의 : (062) 520-4082~3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장